2026년 03월 03일

Market Comment

IBK투자증권 리서치부문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금융 시장 영향 점검

1. 주식 시장: 장기화 가능성 제한적, 단기 조정 후 상승 추세 지속 전망

[단기(1개월 이내): Base Scenario]

미국의 대 이란 공습으로 인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 48%나 폭등해 있어 기술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단기 투자심리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초반 KOSPI는 교전 확대에 따라 5,000pt대 중, 후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양상에 그칠 경우 조정 폭을 Middle-single-digit 수준으로 보는 이유는 과거 중동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 미국 증시의 단기 조정 폭이 5% 전후로 제한됐고 현재 국내 증시와 같은 강세장 환경에서는 단기 악재에 5~10% 내외의 조정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고 증시가 단기 조정에 그친다면, 오히려 기술적 과열 해소를 빌미로 증시 탄력은 재차 강화될 수도 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 배경은 2026년 초 이란의 핵 임계점 도달과 이스라엘과의 물리적 충돌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 협상이 결렬된데 기인한다. 미 항모전단 배치 속에서 진행된 2월 26일 제3차 제네바 핵 협상마저 최종 결렬되며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픽 퓨리 작전을 승인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화되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약 한달 간 언론에 노출된 재료**라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시나리오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사실 작년 6월에 이미 단행된 바 있고,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볼 수도 있다. 상호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놨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작전이라고 시사**했다. 그의 과거 행적은 초반 강수를 두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진다. 지루한 공방을 지속하기보다는 초반 강한 공습을 통해 이란을 무력화한 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경험적으로 중동 분쟁은 짧았다는 점**이다. 최근 24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2년간 이란 관련 3차례의 분쟁이 있었으나, 모두 6~25일 사이에 상황이 단기적으로 종료됐다. 24년 10월에 25일간 소요된 분쟁도 타격과 보복의 시차가 있었을 뿐 25일 내내 타격이 지속된 상황도 아니었다. 좀 더 긴 호흡에서 과거 1~4차 중동전쟁으로 명명되는 사건들을 돌아보더라도 1948년~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차 중동전쟁을 제외하면 나머지 3번 모두 5~20일간의 단기 분쟁으로 종료된 바 있다. 따라서, 사태 초반의 우려보다도 주식시장이나 원유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거나 길지 않았다.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넷째, **미국과 이란 간 압도적 군사력 차이**가 있다. Global Firepower 2025 지수에서 미국은 1위, 이란은 16위로 나타난다. 국방 예산은 약 57배이고, 현역 병력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미국의 국방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군사력 차이를 감안할 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란 지도부의 상당 수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란 군사력의 지휘 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 장기화는 트럼프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유가 하향 안정화에도 미국의 고 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연초 이후 WTI가 20% 이상 상승했고 WTI가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선거에 역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중장기 지속: Worst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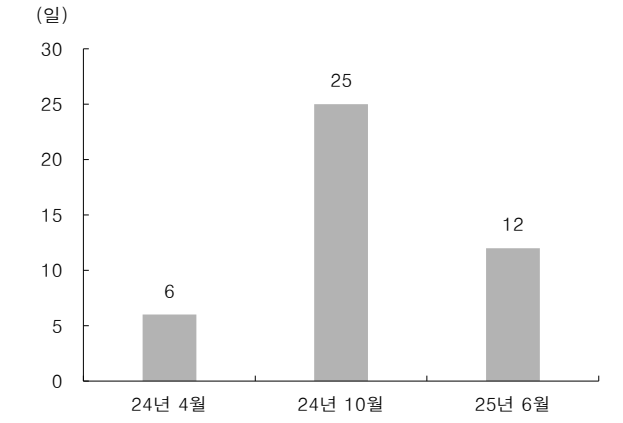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전개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이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5% 전후가 이곳을 지나고,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액화천연가스의 약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해협 봉쇄 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봉쇄가 단행되고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운임료 상승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물가 급등에 따라 소비와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Second Wave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참전국의 증가에 따른 전쟁 양상의 확대로 인한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서방의 지원으로 장기화 됐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은 장기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중동 리스크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글로벌 교역 위축과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된다. 당장 중국은 미국과 약 한 달 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 노선을 지속해 가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유가 급등 상황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태를 관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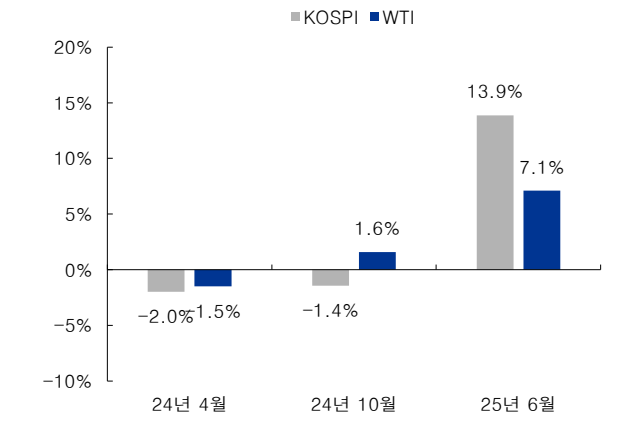
유가 급등을 동반한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는 제2의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자산 시장 급락을 동반 유발시킬 수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AI 모멘텀과 금리 인하로 크게 상승해 있는데다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까지 연결될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그와 유사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KOSPI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12M F. P/B 0.8배를 Try했던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과거대비 국내 증시의 체력이 상승하여 그 당시 0.8배 밸류에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의 증시 조정 위험이 직면할 수 있다.

그림 1. 24~25년 이란*이스라엘 간 교전 일수



자료: 언론 보도 정리, IBK투자증권

그림 2. 24~25년 이란*이스라엘 간 교전 월 증시와 유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 1~4차 중동전쟁 배경 및 교전국

구분	전쟁 시작일	전쟁 종료일	배경	교전국
1 차 중동전쟁	1948-05-15	1949-03-10	이스라엘 건국선언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반발과 선전포고	이스라엘 vs 아랍 연맹
2 차 중동전쟁	1956-10-29	1956-11-07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vs 이집트
3 차 중동전쟁	1967-06-05	1967-06-10	2 차 중동전쟁 이후 소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집트의 보복 공격	이스라엘 vs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4 차 중동전쟁	1973-10-06	1973-10-25	3 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랍 국가가 반대. 욤 키르푸 당일에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전면적인 기습 진행	이스라엘 vs 이집트, 시리아

자료: 언론보도 종합, IBK투자증권

그림 4. 1~4차 중동전쟁 기간 및 당시 증시 · WTI 등락률

구분	기간 (일)	S&P500 등락률(%)			WTI 등락률(%)		
		전쟁 15 일 전	전쟁 중	전쟁 15 일 후	전쟁 15 일 전	전쟁 중	전쟁 15 일 후
1 차 중동전쟁	299	-	-	-	-2.7	6.0	8.7
2 차 중동전쟁	9	-1.3	1.5	-5.2	0.8	-8.9	4.9
3 차 중동전쟁	5	-4.0	3.5	0.5	0.2	-0.5	6.8
4 차 중동전쟁	19	2.5	0.6	-4.7	-2.4	-6.7	-2.7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2.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1,470원대를 1차 저지선으로 두고 유동적 대응 필요

[단기(1개월 이내): Base Scenario]

중동사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원유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유의 80%, 가스의 20%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유가가 10% 가량 상승하면 수출은 0.39%p 감소, 수입은 2.68%p 증가, 기업 원가는 0.3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유의 높은 중동 의존도와 유가에 대한 경제 민감도를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도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반응이 일관되진 않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당시 외환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5년 4월 이란-이스라엘 사태는 외신에서 다룬 뉴스의 빈도/무게에 비해 외환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사태 역시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장기화 및 전면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우리나라 및 미국의 통화정책 움직임 등 다른 요인들도 같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두 국면과 다른 점은 통화 정책 및 금리 움직임이다. 2023년과 2025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로 인해 중동 사태 발생 시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는 축소되는 상황이다. 중동 충격이 동일한 강도라면 원/달러 상방 압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번 **이란 사태를 2025년 이란-이스라엘 사태와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충격이라 본다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의 반응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높은 만큼 초기(일주일 이내)에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초기시점 이후에는 빠르게 이전 수준(1,420원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한미금리차 등 다른 펀더멘털 요인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국면에서 도달 할 수 있는 1차적인 환율 저지선은 1,470원으로 판단**한다. 이 레벨은 2026년초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이 개입했던 수준인 만큼, 이번에도 당국의 안정화 개입이 이루어질 수준으로 추정한다. 단기적으로 이 수준이 뚫린다면 1,500원 선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도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동 수준에서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지속: Worst Scenario]

반면,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국내 비출유 110일 분 정도 추정)되고 여러나라의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지표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함께 중동 사태에 가장 민감한 국가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의 약 80%가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로 분류되는 만큼 다른 통화 대비 환율 변동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1달러 당 1,5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2023년 이후 형성된 추세대 상단인 1,550원선을 테스트 할 전망**이다.

그림 5. 이란사태 장기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선 유동적 상황대응 필요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3. 채권 시장: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중립적 통화정책 강화 예상

[단기(1개월 이내): Base Scenario]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글로벌 채권시장은 국가를 불문하고 통화정책 동결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신중한 통화정책). 단기적으로 **韓국채3년물 금리는 2.85~3.15%, 美2년물 금리는 3.35~3.50% 범위**에서 高변동성 등락을 예상한다.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하는 이유는 이번 충격의 질적 특성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수요충격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 공급충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동결기조는 이란사태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일시적인지/지속적인지를 가늠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변동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사태가 얼마나 길게 장기화 될 것인지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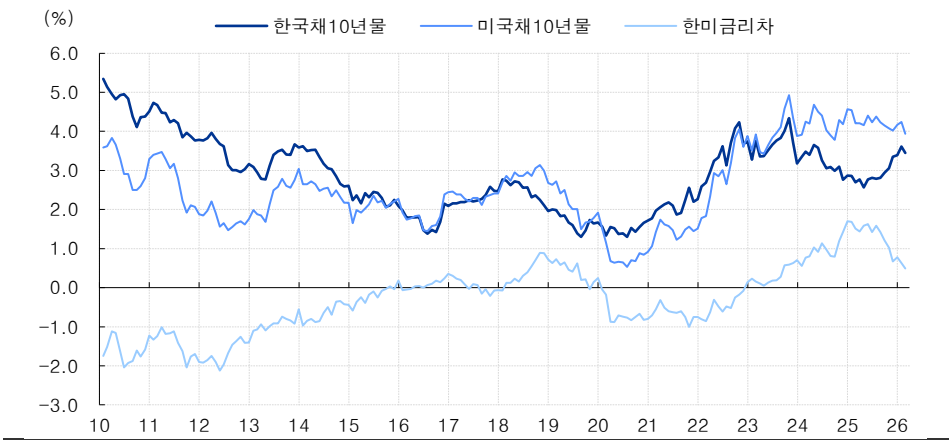
[중장기 지속: Worst Scenario]

중요한 대응지점은 예상과 달리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다. 이때 **중장기물 금리는 유가상승發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란의 대응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는 곧 유가수급 악화 또는 高유가 장기화(기대)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은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기대)관리 목적에서 유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란사태 장기화-금융시장 영향을 대응 프로세스는 단기 충격 이후에 근원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지점이 중요하다.

헤드라인 충격이 매크로 데이터에 영향을 주면, 통화정책도 실물경제 대응을 시작할 것이다. 본격적 대응이 시작되는 시기는 매크로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2~3개월 시차를 둔 2026년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發 2차/3차 파급효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난다면, 글로벌 시장금리도 여기에 연동해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사태장기화), 기준금리 결정폭(25bp)을 가산해 **韓3년물 금리는 3.10~3.30%, 美2년물 금리는 3.50~3.75% 수준의 등락을 예상**한다.

중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번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점진적으로 높일 것이다. 주요 채널은 인플레이션(5년물)과 경기침체 우려(10년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익률 곡선은 **단순 레벨 변화보단 낙타혹(Humped shape: 중기물 상승과 장기물 하락이 나타나는 현상) 형태의** 기간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기물별 예상변화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기물 금리(5년물)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중기물 시장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장기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중동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면 통상환경이 추가로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성장부진)와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시장 우려가 가속화되며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6. 기본 시나리오(단기적 영향) 이후에는 중장기 시장금리 추세에 연동할 전망



자료: 인포맥스, IBK투자증권

4. 미국–이란 사태 국내 섹터별 영향 분석

표 1. 미국–이란 사태 국내 섹터별 영향 분석

섹터	영향도	단기 영향 (1~4 주)	중기 영향 (1~6 개월)	핵심 리스크	기회 요인	주요 종목 예시	투자 전략	모니터링 지표
유통·식자재·지주	▼	소비심리 위축 물가 상승 부담	수입 식품 단가↑ 유가 상승에 따른 필수소비재 수요 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가격 상승	럭셔리 상품 영향 제한적 필수소비 방어	이마트, BGF 리테일 GS 리테일	선별접근 필수소비재 내 방어종목 선별	CPI, 환율(USD/KRW) 수입물가지수
미디어·엔터·레저	▼▼	소비심리 ↓ 방송광고 집행 ↓	여행·레저 수요↓ 공연·MD 수요↓ 방송 광고 집행↓	여행·레저 수요↓ 공연·MD 수요↓ 방송 광고 집행↓	엔터: 고마진 온라인 공연으로 오프라인 공연 위축 상쇄 미디어: OTT 및 영상콘텐츠 수요 증가	엔터: 하이브, 디어유 미디어: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레저: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선별접근 엔터: 메가IP 보유 기획사를 방어주로 대응(하이브) 미디어/레저: 단기 비중 축소 낙폭과대시 매수 기회로 활용	소비심리지수 외국인 인바운드 통계 OTT 별 MAU
자동차 2 차전지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행 부담 증가 및 생산 단가 상승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에너지 고효율 차량 수요 집중 전망.	물류비 폭등 및 원자재 수급 리스크	전기차 전환 가속 미국 IRA 지원 지속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선별 접근. 자동차/2 차전지 중장기 비중 확대	니켈 코발트 망간 원자재 가격 중동 자동차 판매량
조선·기계	▲▲	해군 함정, 국방 수요↑ 희망봉 우회로 운임 상승, 조선 수혜	상선, 군함 수요 급증 기계류 국방 수출	원자재 비용 상승	방산 수출 확대 운임 상승으로 인한 해운사들의 발주여력 개선, 상선 수주 급증 해군 증강 수혜	조선: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J 중공업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핵심 비중 확대 방산, 함정, 상선 집중	선종별 운임 방산 수출 계약 원자재(후판) 가격
소재·부품·장비	→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급등	수출 차질 소재 조달 비용↑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입 비용 증가	방산 소재 부품 수요 국산화 가속	RFHIC, 웨이비스 등 방산 소재 부품 국산화 기업	선별 접근 방산 소재주 주목	유가 및 방산 계약 추이
IT·반도체	▼	수출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리스크	수출규제 강화 우려 공급망 재편	이란 사이버 공격 희토류·소재 공급 차질	방산 반도체 수요↑ 사이버보안 투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단기 비중 축소 낙폭과대 시 매수 기회	반도체 수출 동향 DRAM 가격 수출통제 발표
음식료·유틸리티·통신	→	방어 섹터 부각 상대적 안정	가스·전력 비용 상승 통신 안정 수요	가스 수입 비용 급등 인플레 압박	방어 섹터 안전판 통신 인프라 수요 지속	KT&G, 농심 KT, SKT, 한국전력	방어 포지션 유지 배당주 중심	천연가스 가격 전력도매가격(SMP)
제약·바이오	→	경기방어 섹터 부각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의약품 수급 불안 임상 및 허가 지연	군 의료 수요 방어 섹터 자금 유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방어 비중 유지 개별 종목 이벤트에 주목	의약품 원료 가격 임상 승인 현황

건설·부동산	▼	중동 건설 수주 차질	건설 공사비 상승	중동 프로젝트 발주 지연에 따른 건설사 수주금액 감소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발주처(NOC)의 Capex 확대 가능성	삼성 E&A, 현대건설	단기 하락시, 원전 수주 가능한 종목 중심 매수 추천	중동 발주 동향 두바이유 추이
IT·디스플레이	▼	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	패널 수요 감소 원가 상승	희토류 공급 차질 수출 위축	군사용 디스플레이 수요 국산화 기회, 북미 유럽 국가 내 중국산 디스플레이 배제 가능성 확대	LG 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삼성디스플레이 (비상장)	AI 수요 확대에 따른 OLED 침투율 증가 초입 국면. 선제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기 보다는 낙폭과대 시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	패널 가격 지수 노트북, 모바일, 태블릿 판매 동향
에너지	▲▲	유가 급등 호르무즈 봉쇄 시 WTI +30~50% LNG 현물가 폭등	고유가 지속 중동 공급 차질 국내 정유사 정제마진 확대	원유 수입 비용 급증 전력·난방비 상승 무역수지 악화	정유사 재고평가이익↑ LNG 트레이딩 수익 신재생 전환 가속 기대	HD 현대, S-Oil GS, 한국가스공사 SK 이노베이션	정유·가스주 단기 비중 확대 유가 헤지 전략 병행	WTI·두바이유 가격 호르무즈 통행량 LNG 현물가(JKM)
소재 (철강·화학·비철금속)	▼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수출 수요 위축	원료탄·철광석 변동성↑ 석유화학·나프타 급등 비철금속 (니켈·알루미늄) 급등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 중동 수출 감소 환율 상승 시 수입원가 이중 부담	방산 소재 수요 증가 철강 국산화 수혜 희토류 대체 소재 R&D 기회	POSCO 홀딩스, 현대제철 LG 화학,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풍산	단기 비중 축소 방산 소재주(풍산 등) 선별 편입	나프타·철광석 가격 니켈·알루미늄 LME 가격 중동 수출 데이터
AI·인터넷	→	이번 작전에 사용된 AI에 대한 정보 부족 단기 업종 영향은 제한적	이번 작년에 AI가 역할을 한 경우 AI 투자의 당위성 상승 유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금리상승 시 투자 심리 위축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증가	군사 AI 솔루션 수요 증가 사이버 위협 탐지 AI 기반 정보 분석 수요 증가	NAVER, 카카오	방산 관련 AI, SW 투자심리 강화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접근	전쟁에 사용된 AI 확인 데이터센터 비용 변화
게임	→	과거 해외 전쟁에 따른 게임산업 영향은 제한적	전쟁 장기화로 경기가 후퇴할 경우 게임 수요가 상승 기대	소비 여력 감소 중동 유저 이탈	경기 침체 시 게임 수요 증가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현금흐름이 좋은 크래프톤, 넷마블 등은 방어주 역할 기대	신작 게임의 글로벌 출시 일정 변화

자료: IBK투자증권

주: ▲▲ 강한수혜, ▲ 수혜, → 중립, ▼ 피해, ▼▼ 강한피해